

도시풍물시장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원주시 쌍다리 풍물시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Urban Periodical
market in Won-ju City

안 영 갑*

目 次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II. 본 론

1. 도시풍물시장의 성립
2. 소비자, 상설점포상인 및 이동상인의 의식구조 조사
3. 원주시 쌍다리 풍물시장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III. 결 론

1. 요 약
 2. 결 어
-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경영학과 부교수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경영학과 지방시장 연구회가 주관하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서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 정리를 위하여 경영학과 김대식, 김중환, 김병욱, 이민택,곽재진, 김성수, 강완구, 홍중식, 신태선군이 수고해 주었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원주시 당국과 풍물시장번영회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I. 서 론

예로부터 농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이끌어져 왔던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적 시장기능 이외에도 오락과 유희, 그리고 정보의 교환기능까지도 전담해왔던 정기시장이 미친 영향은 지대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과거 수백년의 역사속에서 물물교환의 자연적인 시장형태로부터 출발한 정기시장은 현대에 들어와서 상설시장화되어 점차 소멸되고 규모가 축소되기 전까지는 농촌경제에 있어서나 우리 민족의 삶에 있어서 꿈과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민중 그 자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기시장이 현대화 추세 속에서 많은 변동이 있었다. 농촌을 중심으로한 정기시장이 점차 위축되어 가고, 사라져가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풍물시장이라는 이름으로 5일장이 다시 등장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정기시장과 성립배경이 판이하게 다른 풍물시장의 성립배경과 운영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풍물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유통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문제의 제기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시장에 가보라는 말이 있듯이 시장에는 그 나라의 역사가 숨쉬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역사는 바로 한국의 역사와 다를 바 없다. 정기시장은 물물교환의 형태로 시작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여러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때로는 관의 주도로 혹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생성 또는 소멸하면서 오늘날까지 존속하여 온 것이다.

농촌의 5일장이 필요에 의해 존속해온 반면에 도시에서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농촌 5일장의 기능은 다양하다. 농촌주민들에 있어서 5일장은 거래나 유통 뿐만 아니라 정보의 교환기능까지도 담당한다. 또한 농촌의 5일장은 잔치와 축제 분위기가 되어, 이곳에 참여하는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져 발전하는 지역의 사회적 통합기능까지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하여 현대화된 도시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정기시장이 사라지고 상설시장이 경제적 기능만을 담당해왔다. 이렇게 상설시장만이 존재하던 도시에 풍물시장이 정부의 사회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성립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5일장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풍물거리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져 처음에는 성시를 이루는 듯 하였으나, 상인들의 구성이 노점상을 하던 영세민들이라서 정부당국과의 마찰은 물론이거니와 자본의 부족으로 인한 제품 구색의 문제, 상가구조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많은 모순점을 낳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에 도 풍물거리를 조성하여 5일장이 부활되고 있지만 상인구성이 철거도시 노점상인들이고 풍물거리를 조성하고 이주시킨 주체가 정부당국이기 때문에 부활된 5일장이 도시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는 아직도 미지수인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적인 5일장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다시 부활되는 5일장의 개념으로 바꾸어, 이렇게 도에서 5일장이 열리게 된 배경을 통하여 도시 5일장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상설시장화된 풍물시장의 주체인 소비자, 이동상인 및 상설점포상인의 의식구조와 풍물시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그 두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풍물시장의 활성화 방안의 모색과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은 원주시 쌍다리 풍물시장으로 선정하였다. 도시풍물시장은 정부의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성립되었으며, 그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 5일장의 개념을 부활시켰다. 도시 5일장의 개념이 풍물시장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옛날의 정기시장에 대한 관심과 향수를 갖고 있는 도시소비자들의 의식에 어떻게 와닿고 있으며, 이것이 소비자들의 구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2)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경영학과 지방시장 연구회의 연구사업으로서, 연구 시기는 2년간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1차년도는 199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문헌조사와 더불어 설문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는 원주시 당국과 풍물시장 번영회와 풍물시장에 관련된 문서조사와 관련 기사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조사를 위하여 조사원들이 직접 시장에 출시하여 소비자와 상인에게 설문지에 의거하여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아적은 면접형식을 택하였으며, 그리고 시당국의 시장담당자와 시장변영회측과는 수시로 면담을 하였다. 1차년도 설문지 조사대상자는 소비자 90명, 상설점포 상인 30명, 이동상인 26명 등 총 146명이었으며, 2차년도의 경우 소비자 86명, 상설점포 상인 36명, 이동상인 32명 등 총 155명이었다. 2차년도에 실시된 조사내용은 1차년도에 조사된 설문지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작성되었다.

(3) 본 연구는 도시에서는 사라진 후 노점상 단속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인 사회정책적 이유로 등장하게 된 풍물시장의 성립 배경 및 그 현황을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풍물시장의 모든 상황이 판이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약으로 연구의 범위를 원주시 쌍다리 풍물시장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내용이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되어지는 모든 풍물시장의 성격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II. 본 론

정부당국에서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시질서 확립을 이유로 노점상의 철거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정부당국은 노점상들이 시내 중심가 주요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처음에는 아무런 대책없이 노점상 철거를 실시하여 전국의 노점상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정부당국과 전국 노점상협회간의 다툼은 계속되었고, 노점상인들의 생계유지 요구에 지정거리 및 상권형성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국 각 도시에 노점상을 위한 풍물시장을 형성하고 도심의 노점상인들을 이주시키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먼저 강원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태백시 풍물시장과 춘천시 약사풍물시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본 연구의 주연구대상인 원주시 쌍다리 풍물시장의 성립배경과 현황을 집중 조사하며, 풍물시장의 주체인 소비자, 상설점포 상인, 이동상인에 관한 의식구조 조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운영상의 문제점과 풍물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도시 품물시장의 성립(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1) 태백시 품물시장

시내를 흐르는 하천을 복개하여 상가를 조성하였고,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성립되었으며 금명간에 50미터를 연장하여 의류시장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 5일장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실시를 고려중이라고 한다.

가. 개장일자 : 1989년 6월 13일

나. 매 장 수 : 전체 175개 매장 중에서 150개 매장 입주(1990년 6월 현재)

다. 운 영 : 시당국의 지원은 전혀없고 1매장당 1일 사용료로 400원을 받고 있음.

(2) 춘천시 약사품물시장

춘천시 약사동에 조성한 품물시장으로 각급 기관과 단체의 협조로 5일장을 개장하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가. 개장일자 : 1989년 8월 30일

나. 매 장 수 : 전체 75개 매장 입주

다. 운 영 : 관계기관의 협조와 향토특산물 5일장 개장

(3) 원주시 쌍다리 품물시장

1) 성립 배경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노점상 철거정책이 지방까지 확산되어 원주시에서도 노점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원일로 도로상의 노점상들이 교통장애 및 도로 확장 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물건을 적치하므로써 이를 방치함은 공익 및 도로공사 시행에 크게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주시는 원주의 상설시장인 자유시장과 중앙시장, 평원동 일대에 자리잡고 있던 노점상인들을 당시 쌍다리에서 봉평교에 이르는 강변의 하수천을 복개한 곳에 가건물(파이프 철골조의 포장을 칩)을 설치하여 입주할 것을 권유했으나 노점상인들이 일명 개집이라 하여 입주를 거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1988년 말에는 원주시의 중심가인 원일로를 노점상인들이 점거, 농성을 하면서 원주천 노변의 상권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시당국과 노점상인들의 공방이 계속되어 결국은 시당국에서 원주천변의 노점상인에 대한 근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영구시설물의 설치와 지정거리의 상권형성, 분

조성을 약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쌍다리에서 봉평교에 이르는 강변도로 아래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여 1990년 1월 12일 쌍다리 풍물시장을 개장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 개 장

가. 개장일시 : 1990년 1월 12일 금요일 오후 1시

나. 위 치 : 원주 쌍다리에서 봉평교에 이르는 도로 아래에 조성

다. 상인구성 : 원주시내의 모든 노점상인

3) 5일장의 개장

쌍다리 풍물시장은 개장을 하면서부터 '원주시 5일장 부활 큰 잔치'라는 이름을 내걸고 시민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실시하였다. 쌍다리 풍물시장은 평등한 상행위,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곳, 서민들에게 부담이 없는 곳, 장날(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은 만남의 장소라는 인식을 시·군민들에게 주기 위하여 많은 행사를 개최하였다.

가. 개장행사 및 홍보활동

원주시 당국과 풍물시장 번영회는 개장행사를 비롯한 홍보를 위하여 대규모의 원주시·군민 큰 잔치로 연예인 등을 초청하여 행사를 마련하였다.

① 개장행사 : 1990년 1월 12일 금요일 오후 1시

-내용 : 인기 연예인을 초청하여 대규모의 시·군민 큰 잔치로 개최

② 대보름날 홍보를 위한 행사 : 율놀이 대회(1990년 3월 1일)

③ 강원도민체전을 기념한 향토풍물시장의 개장(1990년 7월 1일)

④ 치악문화제 행사(1990년 10월 7일~10일)

⑤ 풍물시장 1주년 기념행사(1990년 12월 23일~31일)

⑥ 회원체육대회 및 경로행사, 야시장 병행 실시(1991년 4월 23일~31일)

위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일장을 개장하고 적극 홍보를 함으로써 개장초기에는 시·군민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옛날의 5일장의 향수를 맛보기 위하여 원주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인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장날이면 대단한 성시를 이루었다.

나. 시장 운영

시당국과 풍물시장 번영회가 협조하여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자금은 시당국에서 매월 100만원씩 보조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5일장에 오는 이동상인들에게서 장세를 받아

운영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다. 시장의 전체 운영 및 관리는 풍물시장 자체에서 구성한 변영회에서 맡고 있으며, 원주시청 지역경제과에서 행정 및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다. 쌍다리 풍물시장 변영회의 구성 [도표1] 및 강원도 풍물시장 협의회 의원 구성 [도표2]

라. 시장 구성

시장상인들은 대부분 노점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장은 시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분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현재 시장의 구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며 변영회에서도 매장의 변경에 대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시장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은 상인들 간에도 많은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전체 매장 중에서 식당부(모든 음식점 포함)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① 상인 구성 : 30대~40대 20여명이고 나머지는 부녀자와 노약자 [표 1, 2]
- ② 전체 매장수 : 148개소
- ③ 현재 입주매장 : 139개소
- ④ 상가 구성 [표 3]
- ⑤ 상가 구성도 [도표 3]

4) 풍물시장과 5일장 개장의 문제점

가. 기존 상설시장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날을 제외한 평일에는 시장이 한가하다.

나. 풍물시장의 규모는 작다고는 할 수 없으나 구조가 상가건물 구조로 계획, 건설된 것이 아니라서 구조상의 문제점이 많고, 처음 상가입주 당시 시당국의 획일적인 매장구성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다. 5일장의 개장은 매우 성공적이며 특기할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존 상인들이 영세한 이유로 인하여 상품의 구색을 갖추지 못해 이동상인에게 상권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라. 성공적 5일장이기는 하지만 장소가 비좁아 주변 주택가까지 이동상인이 점용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소비자, 상설점포 상인 및 이동상인의 의식구조 조사

(1) 소비자

풍물시장은 자체가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5일장이 열린다하여도 농촌의 정기 시장을 보는 시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만 할 것이다. 소비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각 사항별로 조사결과를 보면 장터에 오는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수단(버스)이 45%이고, 도보로도 41%가 되어서 주 이용 소비자는 도시소비자이거나 주변 인근 농촌지역의 소비자들이다. 장터에 나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내외가 90%가 되었다. 시장에 출시하는 시간대는 오후 1시 이후가 되어 오후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장터에서 머무는 시간에 있어서 전체 응답자 중 56.7%가 1시간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구입상품의 계절성에 있어서 85.6%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대답하였으며, 소득원천은 도시지역인 만큼 급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에 출시하는 횟수는 1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1회가 35.6%, 2회가 17.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풍물시장의 5일장에 나오는 주된 이유로서 물품구입목적이 48%, 52%가 구경을 위해서 나왔다고 응답하고 있다. 구입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환불경험이 24%가 되어서 도시소비자의 불만요인으로 나타났다. 상설점포 이용시에 전체 응답자 중 73.7%가 단골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여 원주시 쌍다리 풍물시장이 아직 상설시장으로서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장날을 제외한 평일에도 상설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은 불과 33%로써 소비자의 이용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그 이유로서 제품구색의 부족이 50%,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재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4%가 되었다. 풍물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주된 이유는 응답자 중 80%가 저렴한 가격이라고 대답하였고, 상품의 구색이 좋다는 것은 15%만 응답하였다. 도시 5일장의 방문객이 대부분 시민인 관계로 사는 곳에 5일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8.9%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농산물의 주 구입처는 풍물시장의 5일장이 아닌 시내의 상설시장으로 나타났고, 가공식품의 구입처와 위생용품의 구입처는 70% 이상이 슈퍼마켓을 이용하고 25% 이상이 농협연쇄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기류, 가전제품의 구입처는 거의 모든 소비자가 기존의 상설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5일장에서는 구경을 나왔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충동구매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일장의 존재여부에 관하여는 존재할 것이라는 답변이 57.8%를 차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2) 상설점포 상인

상설점포 상인은 노점상을 하다가 품물시장으로 이주해 온 상인들로서 현재 품물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상인들을 말한다. 설문지의 응답에 있어서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장날과 평일의 매상액 차이이다. 상인들의 응답에 의하면 86.7%가 장날에 매상액이 증가한다고 대답하였다. 매출액은 계절에 따라 변동한다고 응답상인의 63%가 대답하였고, 취급품목의 계절성에 대해서는 '같다'가 68%, '다르다'가 27%의 응답순으로 나타났다. 장사 경력에 있어서 7년~10년이 26.7%, 10년 이상이 36.7%로 나타나고 있어서 상설점포 상인이 상당수의 오랜 장사경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90%가 생계유지를 위하여로 나타났다. 성별 구분에서는 여자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층도 50대 20%, 60대 이상이 23.3%나 차지하여 그들의 오랜 장사경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학력은 중졸이하가 80%이고, 그 중 무학력이 33.3%나 되었다. 결혼상태는 93.3%가 기혼으로 나타나 있으나 노년층에는 남편을 잃고 혼자된 경우가 많았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상인 구성이 도시의 영세빈민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노점상을 하던 상인들로서 품물시장을 성립시키고 5일장을 부활시켰지만 영세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5일장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66.7%가 존재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5일장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표 4] 상설점포 상인의 애로 사항

-
- 장날에 손님이 시장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게 되며 이때 자리문제가 발생함
 - 자본의 영세성으로 제품의 구색을 갖추기가 어려움
 - 이동상인과의 경쟁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 팔다가 남는 야채의 재고처리 문제(수요예측의 어려움)
 - 취급품목이 유사하고 같은 것이 많으며 상설점포끼리 단결력이 약함
 - 점포의 협소
-

[표 5] 상설점포 상인의 시장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
- 점포 소유권 문제의 원만한 해결(영구임대권, 매매가능)
 - 자본력이 있는 상인들이 입주하여 제품을 고급화하고 제품의 다양성(구색)을 유지
 - 번영회 회원들이 점포를 비우지 말고 밤늦게까지 연장업업을 할 것
 - 회원들이 모두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으로 모여서 장사를 할 것
 - 풍물시장 인근에 아파트 단지를 유치, 건립하여 이용소비자의 수를 증가시킴
 - 시내에 남아있는 노점상의 정리
 - 풍물시장 앞에 상설상가(예, 가전제품 등)의 조성
-

(3) 이동상인

이동상인은 주로 외지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73.1%를 차지하고 있다. 외지에서 오는 만큼 교통수단도 자가용이 80.8%를 차지하고, 소요시간도 2시간 이상이 65.3%로 이동상인이라기 보다는 전문적인 차량행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장터에 100% 자리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제품의 선택기준에 있어서 도시지역인 만큼 품질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를 하게 된 동기는 상설점포의 상인과 마찬가지로 생계유지라고 88.5%가 대답했다. 5일장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이들도 56.7%의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어서 5일장의 장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현재 풍물시장의 5일장에 출시하고 있는 이동상인들은 차량행상의 성격이 강하지만 서로간의 결속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풍물시장에서의 자리배치는 시장번영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동상인들은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장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에 응답한 이동상인의 44%는 시장번영회 측에서 일정한 장소의 충분한 제공없이 장세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번영회 관리요원이 위압적인 자세와 불친절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6] 이동상인의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

-
-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고품질의 상품을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판매
 - 자리가 협소하므로 좀 더 넓었으면 좋겠음
 - 풍물시장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광고활동
 - 상인들의 영세성을 극복하여야 함
 - 시장환경과 질서를 정화시키고 개선하여야 함
 - 이동상인에 대한 규제와 제약을 해서는 안됨
-

3. 원주시 쌍다리 풍물시장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1) 문제점

- 1) 상설점포 상인에 대한 임대 및 분양이 불가능하여 입주 상태가 불안정하다.
- 2) 상인들이 영세하여 제품의 구색을 갖추기가 힘들다.
- 3) 봄, 가을 이벤트시 야시장의 운영권 확보가 어렵다.
- 4) 장날을 제외한 평일에 입주상인들이 개점을 하지 않고 결장하는 코너가 늘어나고 있다.
- 5) 자율적이고 자연발생적 시장형성이 아닌 행정기관 주도의 편의주의적 행정, 시장국의 무관심과 무계획성 등으로 인하여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 6) 코너당 넓이가 협소하여 코너간의 통합 및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 7) 풍물시장이 협소하여 이동상인들이 고가도로와 주택가 골목에까지 노상을 점유하고 있다.
- 8) 소비자 계층이 다양하지 못하며 서민층에게만 약간의 어필을 하고 있다.
- 9) 정부의 주도로 부활된 도시 5일장의 중요성에 비해 운영의 주체가 확실하지 못하며 책임지고 5일장을 지도하고 지원해 나갈 행정요원이 없는 상태이다.

(2) 활성화 방안

- 1) 시청에서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입주상태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

- 2) 평일날 소비자들이 모이게 하기 위하여 쌍다리 고수부지에 문화행사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 3) 제품의 구색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주변의 가전제품이나 기타 고가품 상가의 형성을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평일에 one-stop-shopping을 할 수 있도록 상권을 조성해야 한다.
- 4) 번영회에서는 상가 구성원들이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 5) 현재의 장소가 협소하므로 고수부지에 5일장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정부의 주도로 형성된 도시 5일장이 자리를 확실히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물질적으로 약간의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풍물시장 활성화 전담부서를 편성하여 풍물시장 번영회와의 긴밀한 협조속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
- 7) 지자체의 실시로 원주시의 돈이 외지 상인에게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상인을 강원도(원주권) 상인으로 제한한다.

III. 결 론

1. 요 약

이제까지 부활된 정기시장인 원주시 쌍다리 풍물시장의 현황을 관찰, 면담, 설문지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과 나름대로의 대안을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문제해결의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쌍다리 풍물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풍물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쌍다리 풍물시장의 이해관계자는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상설상인들 들 수 있다. 이들은 거리에서 노점상을 했던 도시빈민들이 대부분이며, 설문지에서 나타내듯이 낮은 학력, 소자본 그리고 노령인구층과 여자의 비율이 높다. 이들은 두 가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매장의 소유권과 5일장이다. 매장의 소유권은 이들에게 있어서 큰 희망이며, 5일장날의 매상은 평소의 5~6배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풍물시장

번영회라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물시장 번영회는 상설상인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둘째로는 이동상인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장터를 떠돌아 다니며 상행위를 하는 부류로서 상설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과 장년층이 많다. 이들은 5일장의 성쇠와 깊은 관련이 있으나, 5일장이 열리는 상설시장의 발전에는 아무런 흥미가 없다. 즉, 이동상인이 많이 모여드는 곳은 5일장이 크게 번창하지만, 그곳의 장이 쇠할 기미가 보이면 미련없이 떠난다. 따라서 보다 많은 이동상인의 유치는 도시 5일장의 성쇠와 깊은 관련이 있다.

셋째로는 시당국을 들 수 있다. 시당국에 의해서 쌍다리 풍물시장은 노점단속에 반발하는 노점상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겨났으며, 5일장 역시 시당국에 의해서 부활된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듯한 인상을 풍기는 쌍다리 풍물시장에 대한 행정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의 해결은 시당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풍물시장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중 유일하게 조직과 행정력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

넷째로는 풍물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원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쌍다리 풍물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도 원인이 있지만 민족의 정서가 어려있는 시골장터에 대한 향수 역시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소비자 설문에서 구경거리를 위하여 장에 오는 소비자의 비율이 생각외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알 수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압력과 우루과이라운드의 등장으로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문화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 196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경제 제일주의 정책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보존하는 일에 등한시하여 왔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 고유의 뿌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도시 5일장을 개장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정부주도로 개장된 5일장이 운영되어 온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개장 초기에는 시에서의 지원도 적극적이고 소비자들의 호응도 좋았으나, 최근에 들어 활성화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도시 5일장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5일장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풍물시장 번영회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쌍다리 풍물시장의 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 5일장의 개념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전통문화(향토문화)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여가공간 조성』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하에 5일장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청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실시예 발맞춰 지역특색에 맞게 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 대형백화점인 롯데 슈퍼백화점이 송파 큰장터나 그랜드 백화점의 향토물산전의 성공은 도시 5일장의 활성화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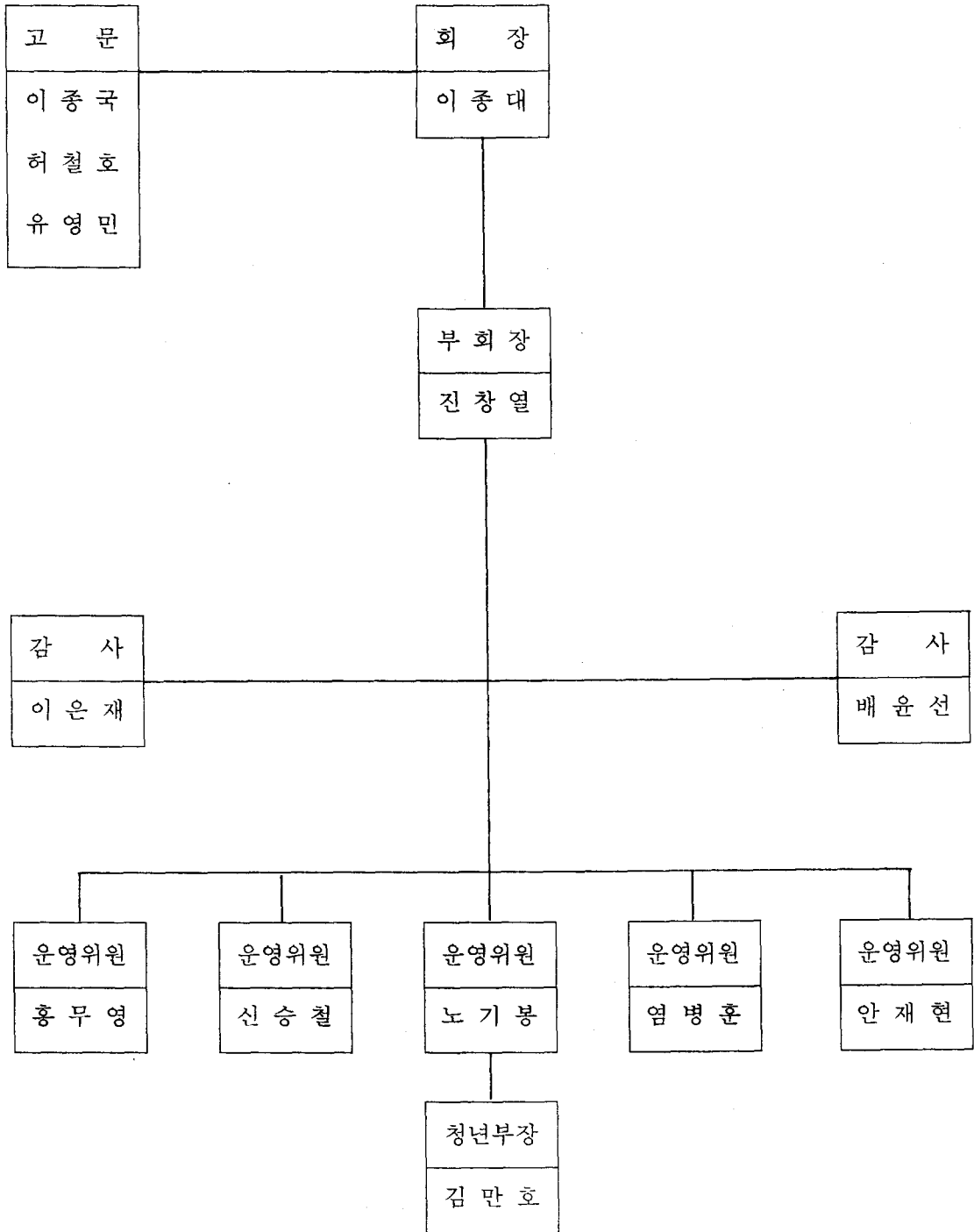
2. 결 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그 맥을 해온 5일장은 정부에 의해 그리고 경쟁환경의 상호간에 주고 받음속에서 생성, 번창, 소멸의 과정을 이어왔다. 이러한 5일장은 우리나라가 현대화되면서 도시에서는 그 모습을 감추었고, 농촌에서만 존재하여 오고 있다. 하지만 농촌도 도시의 근교화가 되어감에 따라 농촌의 정기시장 조차도 점차 소멸되어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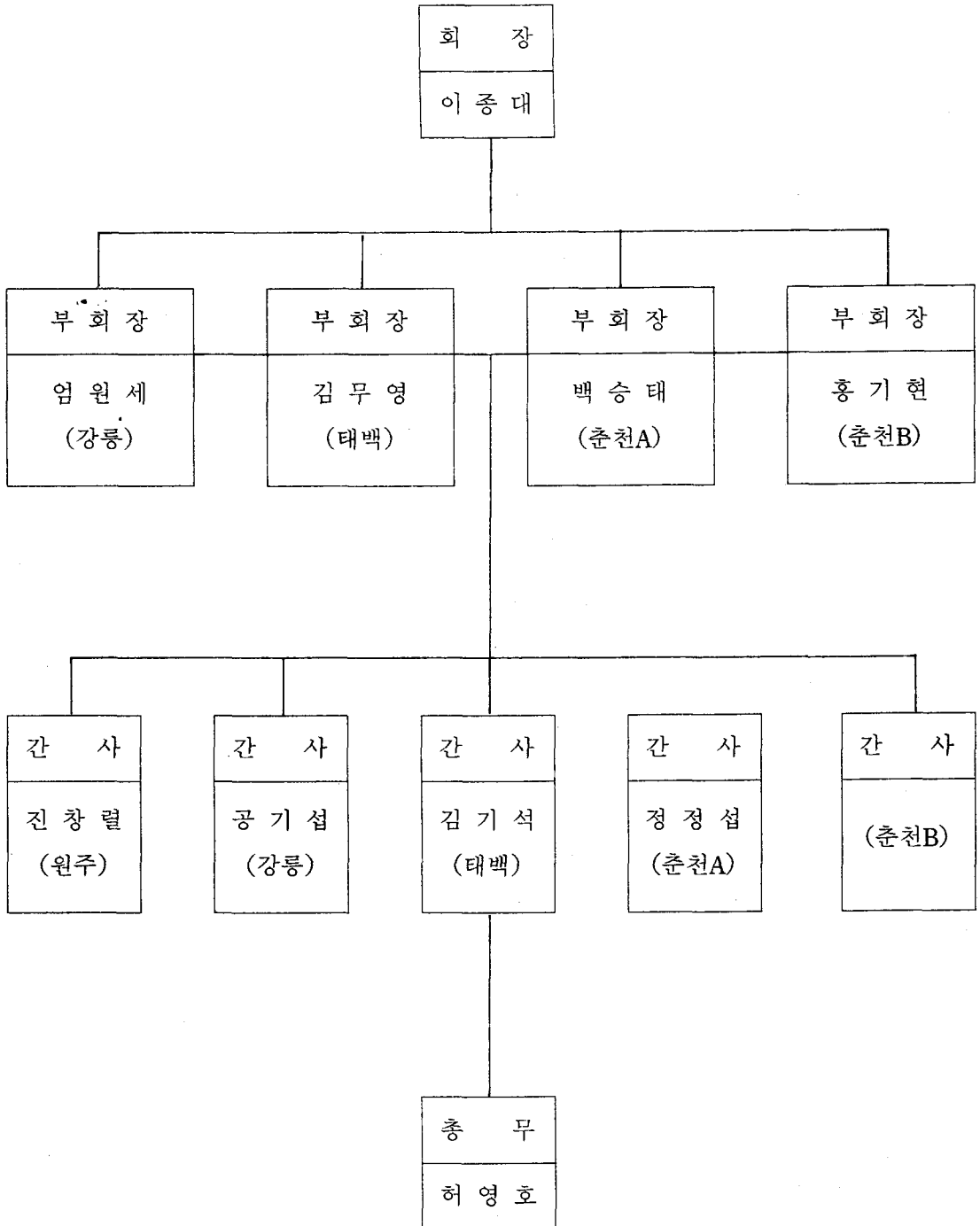
이렇게 정기 5일장이 줄어드는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도시에서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도시에서의 5일장의 부활은 정부의 사회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면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이해와 부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에 있어서 정부당국의 노점상 철거 정책과 노점상인으로 이루어진 품물시장 상인들의 생계 유지라는 목적을 서로 상충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일장을 부활시켜서 도시의 품물시장을 활성화시켜 보려는 상인들이 생각은 일단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품물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내·외부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종국적으로 존폐의 상황까지 갈 지도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원주 쌍다리 품물시장 상인들의 의식을 보면 많은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노력하기 보다는 시장국에서 항상 무엇인가를 해 줄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번영회의 임원진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성공적으로 개장되고 있는 5일장을 시민들에게 더욱 인식시킴과 동시에 자신들의 의식구조 개선, 시장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시장의 전문화(채소 및 청과물)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상에서 우리는 원주 쌍다리 품물시장의 5일장을 살펴 보았다. 앞으로 품물시장은 물론이거니와 도시에서의 5일장으로서 역할을 해내고 시민의 호응을 얻으려면 시장 상인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골치거리의 처리로서가 아닌 실질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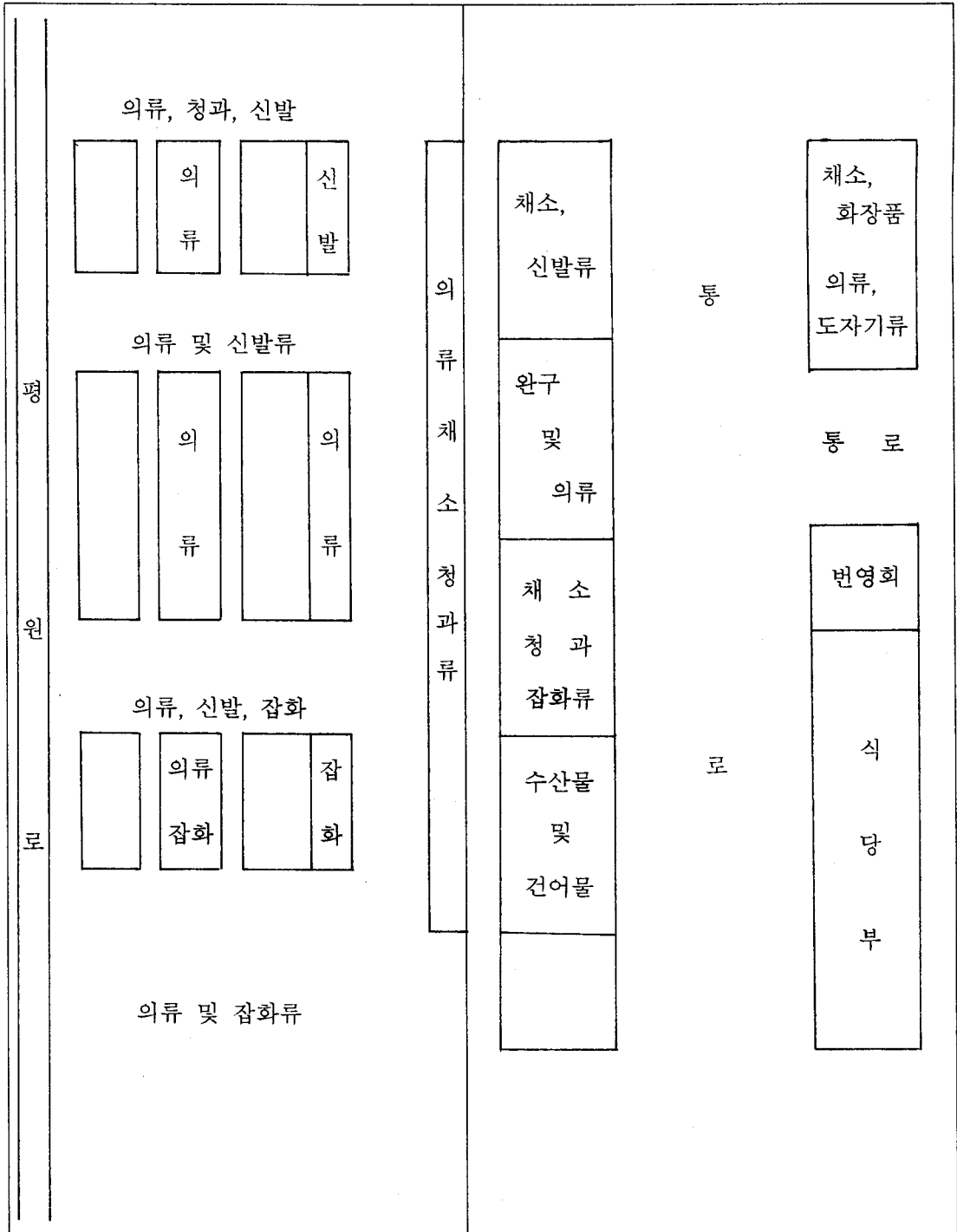
[도표 1] 쌍다리 풍물시장 변영회 구성



[도표 2] 강원도 풍물시장협의회 임원 구성



[도표 3] 상가 구성도



* 상가는 고가도로식 강변로의 밑의 구성

[표 1] 지역별 상인 현황

증 평	원 인	명 른	개 운	단 구	일 산	단 계	학생1	학생2	우 산
24	10	5	8	1	8	3	10	12	.

태장1	태장2	봉산1	봉산2	행 구	반 곡	관 설	무 실	타 도 시 군
15	2	20	7	3	1	1	2	8

[표 2] 상설 점포 상인 입주 현황

총 코 너	입 주 코 너	장기휴점자	빈 코 너
148	140	1	7

[표 3] 상 가 구 성

구	분	매 장 수	구	분	매 장 수
음	식 점	44	의	류	9
신	발	1	채 소	류	24
수	산 물	3	청 과	류	7
집	기 류	1	잡	화	9
완	구 류	1	정 육	점	1
약	재	1	공 예	품	4
악	세 사 리	2	건 어	물	5
반	찬 류	1	쌀, 잡	곡	8
화	장 품	1	수 입 코	너	1
가	방 (모자)	2	테 이	프	1
액	자	2	인 테 리 어		1
전	기 재 료	1	비 널 봉 지		3
그	림	1	기	타	5
계					139